

# 죽음이라는 이름의 개

## 김영래, 김영애 시인을 만나다

\* 그것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죽음이라는 이름의 개 한 마리가 온다.

개 한 마리가 택배로 왔다  
이빨을 드러내고 왕왕거리던 개  
표정도 바꾸지 않고 상자에 담겨 왔다  
별떡이던 심장이며 탕탕하던 오줌보며  
고환을 덜렁거리며 꼬리까지 흔들며  
상징처럼 내게로 왔다 (『상징이 아니다』)

\* 꿈일까? 단순한 배달 사고인가? 개는 죽음으로 포장되어 있다. 살아 있다. 이미 죽은 터라 두 번 다시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악몽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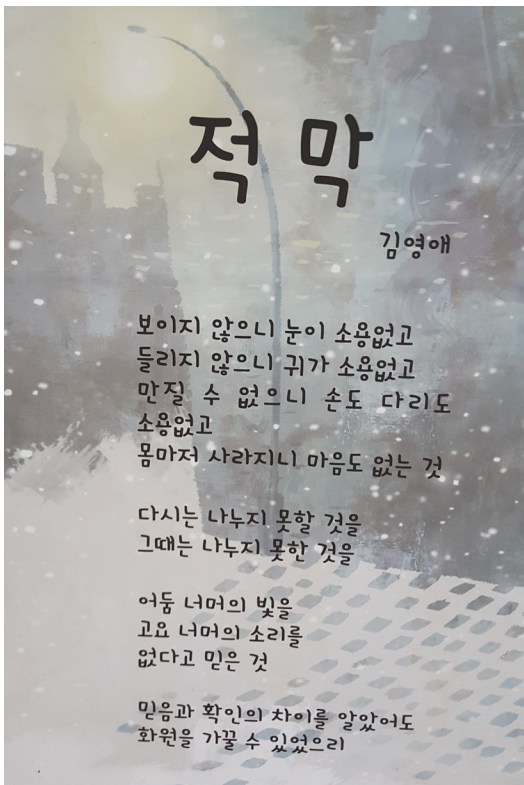
개 한 마리가 택배로 왔다  
시침 소리가 빨라져 혈떡이던 심장이  
불규칙 운동에서 벗어나  
겨우 제자리 뛰기 시작했는데  
바늘 자리에 푸른 명도 가지지 않았는데  
별일 없느냐며 내게로 왔다 (『상징이 아니다』)

\* 어느 날 카프카는 꿈을 꾸다.  
“내 몸 위에 개가 한 마리 누워 있었는데, 앞발 하나를 내 얼굴에

올려놓았고, 그래서 나는 잠에서 깨었으나, 한동안 공포에 질려 눈을 뜨고 개를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 지난 해, 나를 찾아온 기이한 손님이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꿈』이라는 제목의 짧은 산문으로 번역해두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늙고 지친 고양이. 털빛은 지저분하지만 흰색이다.  
고양이는 몹시 피곤한 듯 어디든 멈추면 잠 속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머리가 땅에 닿자마자 재빨리 자세를 가다듬는다.  
그렇게 숲 속을 이리저리 베돌던 고양이가, 내가 지켜보고 있는 집 가까이로 내려온다.  
그때부터다. 고양이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헤벌어진 입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가 싶더니 언뜻언뜻 불꽃이 보인다.  
두 눈은 멍하게 꺼지고 검은 안공만 남는다.  
몸은 거죽뿐인 듯 서서히 오그라든다.  
순간 나는 깨닫는다. 고양이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자기 내부에서 분출되는 불꽃에 의해.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깨침에 이른다.  
소인(燒身)에 의한 죽음은 어떤 생명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종말임을.  
자기 내부의 불에 의한 화장.  
아주 잠깐 고양이의 얼굴에 미소가 스친 듯하다.  
고양이가 타 죽은 자리엔 아무런 흔적이 없다.



\* 꿈. 자기 안의 개. 자기 안의 고양이. 자기 안의 불.  
그러나 정말 이것은 악몽이 아니란 말인가?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전기톱으로 목을 자르고  
사지를 뺐은 몸통을 도막내고  
내장과 창자마저 갈라  
모조리 택배 상자에 담긴 너는  
심상하게 마지막을 증언하며  
단단히 마음먹으라고 내게로 왔다 (「상징이 아니다」)

\* 지옥의 개가 저승사자의 옷을 입었다. 머리 셋 달린 개는 이미 두 차례 시인을 찾아온 바 있다. 그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그에 걸맞게 분장을 했다.

회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적 있었다.

의자가 흔들리고 조여진 현이 끊어졌다  
'조금, 약간, 적당히, 넉넉히'  
이런 낱말들이 갖는 깊이를 알았더라면  
향기가 약한 꽃을 고를 줄 알았더라면 (조금, 약간, 적당히, 넉넉히)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적 있었다.

창을 넓히려 할까, 열고 나가면 될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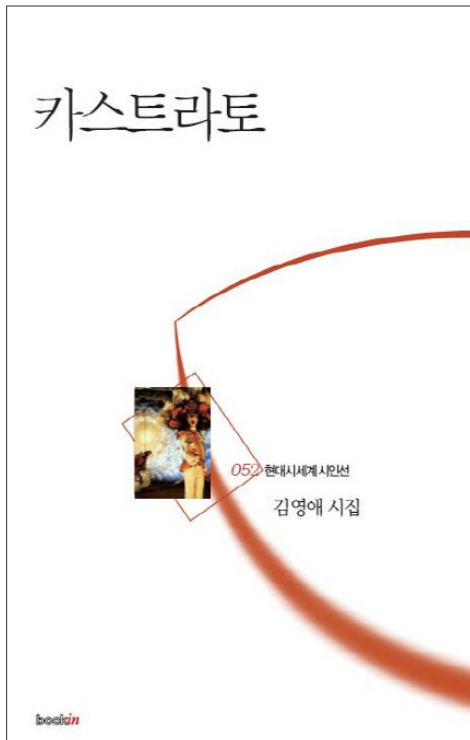
서둘지 말라 했던가, 그래도 서둘렀더라면  
폭우에 잠긴 철길에서 소식이나 기다리지 않았겠지 (「11월의 밤거리」)

무거운 것부터 버리기로 하여 '부터'라는 말이 어렵구나 버리는 일은 필요한 것,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정하는 것이라 틈새가 넓어 무어라도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할 것보다 남아야 할 것들이 빠져나가고 낭패본 건 남은 것들이라 (「저 바람개비가 언제부터 돌고 있었을까」)

그리고 개는 이제 세 번째로 시인을 찾는다.

\* 회한은 지옥의 개다. 선택은 지옥의 개다. 케르베로스의 머리는 세

특집 | 김영애 시인을 추모하며



개다. 이제 또 다른 머리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개가 말한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데  
너는 살아 좋겠다고  
살아 먹을 수 있어 좋겠다고  
살아 슬퍼할 수 있어 좋겠다고  
너의 심장이 무사한 동안  
부디 식욕을 잃지 말라며

택배 상자에 담겨 내게로 와서  
고스란히 너를 드러내며  
상징이 아니라고 짚어대는구나 (『상징이 아니다』)

\* ‘책상과 소파 사이’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카프카. 1914년의 일기에서 그는 쓴다. “문학적으로 보자면 내 생은 지극히 단순하다. 꿈과 같은 내면의 삶을 묘사하는 일이 운명이자 의미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변적인 사건이 되었다. 삶은 무서울 정도로 위축되었고, 점점 더 계속해서 위축되어간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한다. “그 어떤 일에서도 이처럼 큰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 모순에 대해 그는 스스로 해명한다. “나는 내 존재의 밑바닥까지

최대한 이완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꺼내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다.”

‘꿈으로 나 자신을 쉴 새 없이 두들겨대어야만 하는’ 밤. ‘그것은 밤새도록 잠을 파헤치는 쟁기질’이다.

카프카는 거기서 일종의 소명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전달을 강요합니다.”

\* 어느 날 벨이 울린다. 아니, 벨은 울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벨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택배 상자 하나가 집 안으로 배달된다. 꿈은 그렇게 온다. 개도 그렇게 온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전달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다.

혼자 있는 계집애, 습관처럼 지어내는 이야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이야기로 천년을 살아내죠  
물기 없는 땅에서 천년을 살아내죠  
하룻밤이면 족할 거짓말이 붉은 꽃으로 피어나죠 (『세상 끝 정원에서』)

\* 꿈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꿈도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일까? 상징이 아닌 것들은 거짓말일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되지 못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배달되지 못한 개는 개가 아닌 것일까? 그래서 이토록 슬프고 두려울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를  
다시 부를 수 있을까, 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두려움이 부추겼을까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들이 도는데  
도는 일이 두려울까 멈추는 일이 두려울까 (『몽상의 유실』)

\* 카프카의 꿈속으로 그림 하나가 펼쳐진다. 움직이는 무대장치 같은 풍경.

“지워지지 않는 꿈. 그녀는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단지 그녀가 지나가면서 가볍게 흔들리는 여운을 느꼈을 뿐이다. 베일을 바람에 날리며,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나는 들관 가장자리에 앉아 작은 시냇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마을을 지나쳐갔다. 문 앞에는 아이들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세상 끝의 정원’으로 한 여자가 지나간다.

‘어서 눈알을 뽑으라, 잔인한 삶이여’라고 소리쳤던 여자. 그러나 ‘누군가는 누군가의 유골함이 되’는 것을 아는 여자.

그렇게 그녀는 가고 있다.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글 김영래 작가

